

한 손에 중,
한 손에 책

장병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교양 증진을 위한 병영독서활동이 각급 부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육군2군단 방공단은 작가 초청강연을 했고, 공군 11·16전투비행단은 집중정신전력교육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책에서 얻는 생각의 힘 :



육군2군단 방공단이 17일 개최한 작가 초청강연에서 오은(앞줄 왼쪽 넷째) 시인과 장병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 육군2군단 방공단, 오은 시인 초빙강연

독서 통해 돌아본 자기 성찰, ‘내 안의 나들’을 만나다

육군2군단 방공단이 장병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자기성찰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한 인문학 강연을 마련했다.

방공단은 17일 시인 오은작가를 초청해 ‘책에서 내 안의 나들을 만나다’를 주제로 초빙강연을 개최했다. ‘나들’은 독서의 과정에서 만나는 과거의 나, 진짜 나, 미래의 나 등 수많은 ‘나’를 의미한다.

이번 강연은 춘천시립도서관이 추진 중인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 사업과 연계해 마련됐으며, 장병들에게 독서의 가치와 의미를 전

달하고 병영 내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 작가는 독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르네 데카르트의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을 인용하며 군 복무 기간에 꾸준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서는 독서를 통해 만나는 ‘과거의 나’ ‘진

짜 나’ ‘미래의 나’ 등 다양한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장병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독서 습관 형성 방법과 창작 경험 등에 대해 질문하며 책 읽기의 즐거움과 자기 계발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김태훈 상병은 “독서를 통해 마주하게 되는 진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전역 후에도 자기 계발과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독서 습관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 공군 11·16전비, 병사집중정신전력교육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병영 반환점 돈 상병 진급자, ‘삶의 가치관’ 묻다

공군11전투비행단(11전비)은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해 병사집중정신전력교육(옛 상병진급캠프) 중 독서 및 독후감 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작해 이날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은 국방부의 ‘한 중, 한 책’ 프로젝트에 발맞춰 병영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상병 진급자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교육 입과 전 병사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관심사에 맞는 책 1권을 직접 고민해 선정했다. 이어 사흘 동안 매일 오전 시간을 활용해 책을 깊이 있게 정독했다. 그 후 독서를 통해 느낀 깨달음과 앞으로의 다짐을 담은 독후감을 작성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교육에 참여한 전휘성 일병은 “소설 『시다르타』를 읽으며 남은 군 생활과 전역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다”면서 “남은 복무 기간에 겪을 수많은 변화의 시간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즐기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교육을 기획·진행한 이하은(대위) 정신전력교육담당관은 “군 생활의 반환점을 맞은 상병 진급 대상자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단순히 책 속에서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군 생활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었기를 바란다”며 “병사들이 남은 군

생활 동안에도 독서를 생활화해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군16전투비행단(16전비)은 16일과 17일 국방부가 추진하는 ‘한 손에 중, 한 손에 책’ 프로젝트와 연계해 ‘병사집중정신전력교육’ 입과 병사들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군은 계급에 따라 필요한 ‘집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 때는 군 생활 적응 교육, 병장 때는 경제교육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상병 진급자 대상으로는 정신전력교육의 핵심인 ‘병사집중정신전력교육(옛 상병진급캠프)’이 진행된다. 공군은 병사 신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병 계급 진급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신전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6전비는 상병 진급자들이 지난 군 생활을 돌아보고, 남은 복무 기간 독서를 통해 병영생활에 새로운 자극과 목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16전비 독서프로그램은 ‘목표 설정-독서 실천-성장 공유’ 세 단계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캠프 입과와 함께 군 생활 비전과 독서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고 및 학습 기법인 ‘만다라트(Mandal-Art)’를 작성하고 서로의 계획을 공유



공군11전투비행단 병사집중정신전력교육 참여자들이 부대 내 강당에서 독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휘성 일병



공군16전투비행단 상병 진급자들이 병사집중정신전력교육 중 독서실천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부대 제공

하고 발전시켰다.

이어 양서를 탐독하기 위해 부대 인근 경북도서관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작성해 둔 만다라트를 바탕으로 목표와 관련된 도서를 직접 찾아 보고, 독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무 기자

또 다른 삶의 전투력이다